

구세주 하나님 안되면 하늘나라에서 살 수 없어

다양한 색깔의 이슬성신

본부 제단에서 찍었는데, 이렇게 이슬성신이 내렸어요. 우리가 찍으면 이렇게 색깔이 빨강색깔로도 나오는데 마귀새끼들(광주 삼천년성)이 찍으면 하얀 색깔 밖에 안 나오죠? 왜 그러냐 하면 광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광선이 카메라렌즈에 들어오면 그 광선은 하얗게 찍히게 되어 있어요. 그건 이슬성신이 아니에요. 마귀는 모방력이 있다고 그랬죠? 마귀는 모방을 하는데 그렇게 하얗게 모방을 하는 거예요. 색깔로는 나오질 않아요. 우리는 빨강색깔 아니면 보라색 색깔 없으면 무지개색깔로 찍혀 나오죠? 이와 같이 무지개색깔로 찍혀 나온다는 것이 격암유록에도 쓰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짜와 진짜는 그것으로 구분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그래요. 이 사람이 14일 아침 10시 비행기로 미국을 갑니다. 그래서 미국 갔다가 한 열흘이나 열 며칠 있다가 오게 될 거예요. 오늘 날짜로 우리제단에 나온 식구들은 전부 하나님이 됐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됐다는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됐다는 공지와 희망이 수반되게 되어 있어요. 영생의 희망과 하늘나라에 들어갈 희망을 항상 가져야 하나님이 됐다가 유지되는 거지, 그 희망이 없으면 하나님이 됐다가 도로 떨어져요. 사람이 도로 되어 버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도 의심을 하지 말아야지, 의심을 하면 바로 사람으로 탈락이 돼버려. 아시겠지? 의심을 하는 사람은 그냥 그 순간에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됐다는 말씀을 들은 순간부터 하나님이 되었다는 공지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됐다는 공지를 안 가지면 도로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됐다는 단계 가지고는 구원은 안돼요. 구세주가 되어야 구원이 되지, 구세주가 안 되면 구원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다운 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되었다는 단계는 구세주 될 후보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구세주를 키우는 것이지, 그냥 보통 사람을 키우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구세주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됐다는 공지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다운 생활을 하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가지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누가 욕을 한다고 해서 화를 낼 수 있을까? 화낼 수 없어요. 화내고 그러면 도로 인간이 돼버려요.

이 사람이 정하면 정하여지고 사(赦)하면 사하여지는 거예요. 그러한 권세가 구세주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으로 하나님이 됐다고 하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됐다는 말을 하질 말아야지, 하나님이 됐다는 말을 하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사람 자체가 하나님이예요. 그런데 이 승리제단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말이 돼? 승리제단 나오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되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승리제단에 나오지, 사람은 이 승리제단 못 나오요. 나왔다가도 툭 튀어서 나가요. 어떤 사람은 데리고 와도 이상일 나오다 간 금세 안 나오고 그러죠? 그건 왜 그러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를 계속 다닐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된 사람이 아니라 되게 되어 있지, 이 제단은 사람은 못 다니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됐다는 공지와 하나님다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다운 생활을 해야 되겠



구세주 조희성님

조?

하나님은 겸손하신

하나님은 겸손한 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겸손해야 돼, 겸손하지 않아야 돼? 겸손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었다고 해서 기뻐할 필요는 없고, 하나님이 됐다는 그 수순을 먹칠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품고 살면 하나님으로서 영원무궁토록 살게 되겠어요? 어쩌다가 승리제단 나오고 싶어서 나왔는데, 이렇게 하나님까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사한 마음만 가지면 돼요. 기뻐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누구한테 자랑하지도 마세요. '난, 하나님이 됐다.' 하고서 자랑을 하게 되면, 자랑하는 순간 사람이 돼버려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자랑하는 하나님이 아니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하나님이요. 그래서 항상 자신을 낮추는 신이에요. 그래서 항상 천한 일, 힘든 일, 말하자면 하나님만을 위해서 총성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지 나를 위해서는 안 살아요. 하나님은 그런 성품의 하나님이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만 위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것이 바로 자유율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는 걱정만 하는 거지 하나님은 다른 걱정은 없어요. 그러므로 승리제단 식구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죠? 여기서 하나님 집이고 여기서 바로 천당이에요. 천당에 와서 만날 예배 보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면 되겠어요? 안 되죠? 이 사람이 워낙 깡쟁이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거의 70-80%가 다 됐지만 말을 아낀 거야. 잘못 말하면 하나님이 됐다고 교만해져가지고 도로 마귀가 될 우려가 있어요. 우쭐한 마음을 가진 다든지 또는 하나님이 됐다고 가족들한테 자랑을 한다든지 하면 대마귀가 돼

려. 절대로 하나님이 됐다는 건 1급 비밀이야.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된 후 하나님의 자격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비밀을 그대로 간직하는 신이에요. 하나님이 되었다면 하나님처럼 비밀을 유지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은 묵묵히 천한 일이나 하나님의 일만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됐다고 으스스하게 빠기거나, 하나님 됐다고 다르게 생활을 하면 그런 큰일 나오. 미역국 먹어. 그래서 하나님이 됐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됐다는 건 지옥을 면했다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구세주가 되어야

하나님이 된 고로 여러분들은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영원무궁토록 살 후보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하늘나라에서 영원무궁토록 살 자격자가 되려면 구세주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사람들을 전도해서 전부 제단으로 이끌고 와서 열매를 맺어야 되겠어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구세주가 돼요. 구세주 되고 싶어, 안 되고 싶어? 되고 싶어요. 구세주가 되려면 전도를 많이 해야 돼요. 아시겠지? 구세주가 되면 그건 완전한 하늘나라 식구예요. 구세주나 하늘나라에서 사는 하늘나라 식구지, 구세주가 아닌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라는 건 마귀한테 질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완전히 이기는 구세주가 되어야 돼요. 어떤 마귀라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자격자가 구세주예요. 그렇게 되려면 전

도를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심령을 강하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성경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했던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이긴자의 영, 마귀를 이기는 영이에요. 마귀를 이기는 영은 마귀를 이긴 이긴자 구세주에게만 있는 거지, 다른 하나님에게는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마지막 때까지 찾아볼 수가 없다.'고 누가복음 18장 8절에 쓰여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마지막 때에는 구세주가 와서 인간 세상을 없애버리고 사람 속에 있는 마귀를 전부 전멸시키니까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로 여러분들 속에 있는 마귀를 죽이고,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마귀가 안 죽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 그건 사람이 도로 돼버려요. 아시겠어요? 마음먹은 대로 된다고 그랬죠? 내 속에 마귀를 구세주가 죽였다고 믿으면 그건 이미 죽은 거예요. 말씀이 벌써 던져졌으면 죽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됐다는 공지를 가지고 항상 하나님 노릇을 해야지, 하나님 되어가지고 사람 노릇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사람은 과거도 중구난방으로 생각하고, 항상 가족을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화가 나면 화를 내기도 하고 신경질이 나면 신경질 내기도 하고 그러죠? 여러분들 이제는 큰일 났어!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신경질도 못 내고, 누가 때려도 맞고 가만히 있어야지, 화났다가는 사람이 도로 돼버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조용히 있어야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이니까 별 수 없어 이제. *

2001년 5월 12일 주님 말씀 중에서 정리 원현옥 기자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7) 미디안에서 40년 만에 애굽으로 돌아온 모세

(지난호에 이어서)

모세는 아버지 야벳을 뵈고 굉장 고센 땅으로 갔습니다. 모세는 형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 놓고 모세에게 함께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쥐고 있던 지팡이로 신기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말을 믿고 같이 애굽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애굽의 왕 투트모세 3세가 임시로 머물고 있는 라암셋의 국고성으로 갔습니다. 궁궐 문지기인 애굽 왕을 만나려고 하는 자가 틀림없이 모세 왕자라는 것을 알고 투트모세 3세에게 보고했습니다.¹

모세보다 세 살 연상인 투트모세 3세는 40년 전에 왕궁을 뛰쳐나간 아우 모세의 귀환에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문지

¹ 투트모세 3세는 재위 기간 동안 16차례 이상에 걸쳐서 서아시아까지 원정을 감행하였는데, 원정통로에 위치한 가나안 땅은 애굽 병정들의 강탈로 황폐화될 대로 황폐화되어갔다. 그리고 전쟁 물자를 비축하는 국고성이 있는 고센 땅에서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투트모세 3세의 서아시아 원정으로 인해 심한 갈취를 당하고 부역(賦役)으로 고통을 당하였다. 투트모세 3세는 왕궁이 있는 데베다 국고성이 있는 라암셋에 거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5장 모세》

(7) 미디안에서 40년 만에 애굽으로 돌아온 모세

기의 보고를 받은 애굽 왕은 반가워하면서 "모세왕자님을 궁전으로 모시라."고 분부했습니다. 모세가 궁전에 들어서자 애굽의 왕 투트모세 3세는 자신이 가장 궁궐했던 일을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나의 아우 모세는 애굽의 왕이 되는 즉위식을 앞두고 이 땅에서 지취를 감추어 왕이 되기를 거부했습니까? 그 이유를 꼭 듣고 싶습니다. 괜찮으시면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대답하기를, "내가 왕이 되면 나와 투트모세 3세 간의 두터웠던 형제애가 깨지고 서로 사이가 나빠질 것이 확히 내다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내가 나를 길러주신 하셉수트 왕의 아들임에는 분명하나 나의 생모가 이스라엘 사람임을 알고, 내 자신이 이스라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모세 왕자의 사연(事緣)을 들은 애굽의 왕 투트모세 3세는 크게 감동하여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품으로 돌아간 모세왕자님이 이제 와서 애굽의 왕이 되는 나를 찾아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는 모세 왕자님이 이스라엘의 신분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멸시하거나 천대할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왕으로 있는 동안 애굽에서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하겠으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내가 애굽의 왕을 찾아온 목적은 다름이 아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제사)를 지킬 것이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라는 말에 방금까지 밝았던 낯빛이 어둡게 변했습니다. 애굽의 왕은 통명스러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호루스(Horus; 태양의 신의 화신(化身)인 애굽왕보다 더 큰 신이 있을 수가 없소이다. 야훼가 누구기에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소? 나는 야훼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소."

모세와 아론이 다시 말하였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애굽의 왕은 두 사람에게 대답하기를, "모세와 아론은 들으시오. 당신들은 어찌하여 백성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시오. 여서 물러가서, 당신들도 백성처럼 일이나 하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애굽의 왕 투트모세 3세 앞에 선 모세와 아론

애굽의 왕 투트모세 3세는 뒤돌아서 궁전 밖으로 나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서, "고센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의 백성보다도 더 불어났거든. 그런데도 저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일을 중단시키려 드는구나."하고 몹시 언짢아했습니다.

애굽의 왕은 그날, 감독관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벽돌을 굽는 데 짚을 주지 말라. 직접 짚을 주워서 벽돌을 굽도록 해라. 그러나 하루에 굽는 벽돌 수는 이전과 같아야 하며, 하늘나라도 줄이지 말라."

이와 같은 명령을 받은 감독관은 감독 대리역할을 하는 히브리출신의 작업반장에게 전했습니다.

그 뒤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욱 심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벽돌을

만들 때 쉰 짚을 애굽 사람들이 대어 주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 자신이 장만하고 구해다 써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시간도 더 늘어나고 일일생산량의 미달로 채찍질도 갈수록 더해 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심한 학대를 받는 것은 저 놈의 모세와 아론이 궁궐에 들어가서 건방진 소리를 해서 이렇게 된 거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원성(怨聲)을 듣는 모세는 당황하여 하나님께 자기의 답답한 마음을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그리고 왜 저와 같이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의 사자로 쓰셨습니까. 당신의 말씀대로 애굽의 왕에게 전했더니 도리어 애굽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살게 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내가 애굽 왕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니라. 애굽 왕은 얼마 안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고야 내 말을 잘 전해라. 나는 야훼,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사람의 신을 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 노예의 생활에서 건져내어 주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 시달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이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어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말한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라. 다시 너의 대언자 아론과 함께 애굽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땅에서 내보내 달라고 말해라. 내가 이제 애굽 땅에서 기이한 일을 많이 일으키겠으나 애굽 왕은 너희 말을 듣지 않으리라. 그때는 내가 나의 손을 들어 애굽을 치고, 나의 군대로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낼 때 그때서야 애굽 사람들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용기를 내어 애굽 왕을 찾아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 때 모세의 나이는 80살이고, 아론은 83살이였습니다.

출애굽기 7장 7절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팔십 세였고 아론은 팔십삼 세였다*²